

# 전북 섬유산업 동향

ECO융합섬유연구원

## 1. 전북지역 수출입 동향

### □ 품목별 수출 동향

- '18년도 전북지역 섬유류 수출은 전년대비 23% 증가한 468.1백만불 기록
  - 섬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세를 나타내어, 섬유원료가 전년 대비 37.9% 증가한 274.9백만불, 섬유사가 6.1% 증가한 105.7백만불, 섬유직물은 34.4% 증가한 28.6백만불을 기록
  - 섬유제품은 전년대비 2.3% 감소한 58.9백만불을 기록

### <품목별 수출 현황>

(단위: 백만불, %)

구 분	2017년				2018년			
	10월	11월	12월	누계 (1~12월)	10월	11월	12월	누계 (1~12월)
섬유원료	20.5	26.3	23.0	199.4	29.9	20.6	24.8	274.9
(증감률)	(6.3)	(40.2)	(△4.8)	(△12.1)	(46.2)	(△21.6)	(7.7)	(37.9)
섬유사	8.5	7.7	9.3	99.6	7.1	9.0	7.1	105.7
(증감률)	(6.2)	(△1.7)	(13.8)	(0.0)	(△16.4)	(17.5)	(△23.6)	(6.1)
섬유직물	1.5	2.8	2.7	21.3	2.1	2.0	1.4	28.6
(증감률)	(18.6)	(43.9)	(116.6)	(50.7)	(40.7)	(△30.1)	(△49.7)	(34.4)
섬유제품	2.9	6.2	5.7	60.3	5.5	6.1	4.6	58.9
(증감률)	(△33.6)	(7.8)	(△6.6)	(△0.4)	(91.6)	(△1.6)	(△18.8)	(△2.3)
합 계	33.3	43.0	40.8	380.5	44.6	37.7	37.9	468.1
(증감률)	(1.5)	(25.5)	(2.6)	(△5.1)	(34.0)	(△37.7)	(△7.0)	(23.0)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(MTI 4 섬유류 기준), 주)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

□ 국가별 수출 동향

- '18년도 전북지역 섬유류 국가별 수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세
  - 미국이 전년대비 41.6% 증가한 114.4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출액과 무역수지를 기록했으며, 중국이 전년대비 20.9% 증가한 60.8백만불, 이탈리아가 53.7% 증가한 29.1백만불, 베트남이 38.5% 증가한 28.9백만불을 기록
  - 이외 브라질이 전년대비 52.9% 증가한 18.9백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도 수출액 9위에서 5위로 4계단을 상승

<주요국별 수출 현황>

(단위: 백만불, %)

구 분	2017년				2018년			
	10월	11월	12월	누계 (1~12월)	10월	11월	12월	누계 (1~12월)
미국 (증감률)	5.4 (△35.4)	9.7 (15.0)	7.7 (△4.7)	80.8 (△10.7)	14.4 (168.8)	12.5 (29.3)	10.9 (41.6)	114.4 (41.6)
중국 (증감률)	5.2 (11.7)	5.4 (5.5)	5.5 (6.3)	50.3 (11.6)	4.8 (△7.2)	5.0 (△7.9)	5.3 (△3.5)	60.8 (20.9)
이탈리아 (증감률)	1.9 (63.2)	2.4 (40.4)	2.5 (△34.7)	18.9 (△18.2)	3.2 (68.6)	2.0 (△14.9)	3.0 (20.6)	29.1 (53.7)
베트남 (증감률)	1.4 (23.5)	2.9 (25.6)	2.3 (△0.1)	20.9 (11.4)	2.2 (61.2)	3.5 (23.4)	2.1 (△9.3)	28.9 (38.5)
브라질 (증감률)	1.3 (101.6)	1.1 (24.0)	1.1 (△31.3)	12.4 (18.5)	2.5 (85.9)	1.2 (8.2)	1.5 (30.9)	18.9 (52.9)
합 계 (증감률)	33.3 (1.5)	43.0 (25.5)	40.8 (2.6)	380.5 (△5.1)	44.6 (34.0)	37.7 (△37.7)	37.9 (△7.0)	468.1 (23.0)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(MTI 4 섬유류 기준), 주)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

□ 품목별 수입 동향

- '18년도 전북지역 섬유류 수입은 작년대비 31.2% 증가한 177.7백만불을 기록
- 섬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나타냄
- 섬유제품은 전년대비 49.3% 증가한 138.9백만불을 기록
- 이 외 섬유원료는 14% 감소한 6.8백만불, 섬유사는 4.2% 감소한 26.2백만불, 섬유직물은 18.6% 감소한 5.8백만불을 기록

<품목별 수입 현황>

(단위: 백만불, %)

구 분	2017년				2018년			
	10월	11월	12월	누계 (1~12월)	10월	11월	12월	누계 (1~12월)
섬유원료 (증감률)	0.3 (△69.2)	0.5 (△39.4)	0.6 (△54.7)	7.9 (△32.1)	0.6 (80.4)	0.9 (70.9)	0.2 (△68.7)	6.8 (△14.0)
섬유사 (증감률)	2.0 (△34.8)	2.0 (△3.9)	2.1 (△27.0)	27.4 (△7.9)	1.9 (△2.9)	1.8 (△10.5)	1.3 (△37.6)	26.2 (△4.2)
섬유직물 (증감률)	0.3 (△31.9)	0.7 (△22.4)	0.5 (64.9)	7.2 (36.9)	0.4 (34.7)	0.3 (△56.9)	0.2 (△48.1)	5.8 (△18.6)
섬유제품 (증감률)	9.1 (37.2)	8.3 (31.9)	9.2 (61.1)	93.0 (39.2)	14.1 (55.8)	9.8 (17.1)	10.4 (13.0)	138.9 (49.3)
합 계 (증감률)	11.7 (4.7)	11.5 (13.7)	12.4 (21.4)	135.4 (19.4)	17.1 (46.1)	12.7 (9.9)	12.1 (△1.8)	177.7 (31.2)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(MTI 4 섬유류 기준), 주)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

□ 국가별 수입 동향

- '18년도 전북지역 섬유류 국가별 수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세
-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전년대비 26.5% 증가한 67.9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하였으며, 필리핀이 전년대비 236.2% 증가한 21.3백만불, 캄보디아 가 141% 증가한 14.4백만불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

- 이 외에 중국은 전년대비 0.9% 증가한 22.7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, 일본은 전년대비 25.5% 증가한 12.4백만불을 기록

〈주요국별 수입 현황〉

(단위: 백만불, %)

구 분	2017년				2018년			
	10월	11월	12월	누계 (1~12월)	10월	11월	12월	누계 (1~12월)
베트남	5.4	4.2	3.9	53.7	7.8	4.5	5.0	67.9
(증감률)	(17.1)	(42.2)	(45.1)	(74.4)	(44.1)	(7.6)	(29.3)	(26.5)
중국	1.5	2.4	1.8	22.5	1.7	1.6	1.1	22.7
(증감률)	(△32.7)	(4.7)	(△13.0)	(△25.0)	(14.2)	(△31.9)	(△35.3)	(0.9)
필리핀	0.9	1.1	1.4	6.3	2.1	1.3	1.4	21.3
(증감률)	(1,839.0)	(555.9)	(1,464.8)	(670.3)	(117.2)	(24.4)	(1.3)	(236.2)
캄보디아	0.8	0.3	0.7	6.0	1.1	0.6	1.3	14.4
(증감률)	(345.7)	(△3.2)	(363.1)	(116.0)	(37.3)	(94.5)	(79.1)	(141.0)
일본	0.7	1.2	1.0	9.9	1.0	1.2	0.3	12.4
(증감률)	(△26.6)	(27.6)	(△15.5)	(△8.0)	(29.9)	(5.8)	(△72.0)	(25.5)
합 계	11.7	11.5	12.4	135.4	17.1	12.7	12.1	177.7
(증감률)	(4.7)	(13.7)	(21.4)	(19.4)	(46.1)	(9.9)	(△1.8)	(31.2)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(MTI 4 섬유류 기준), 주)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

## 2. 전북지역 생산 동향

□ '18년도 전북지역 섬유류 생산 동향은 전년대비 생산지수, 출하지수, 재고지수가 모두 감소세

- 총 생산지수는 전년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로 전년대비 13.4% 감소한 877.6을 기록
- 총 출하지수는 지난해 증가세에서 올해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년대비 16.6% 감소한 874.4을 기록
- 총 재고지수는 전년대비 약 22% 감소한 1271.6을 기록
-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총 생산·지수는 상반기 증가세에서 하반기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년대비 9.6% 감소한 1022.2을 기록

### <전북지역 섬유류 생산 현황>

(2015=100)

구분	생산지수		출하지수		재고지수		
	'17	'18	'17	'18	'17	'18	
1월	섬유제품 제조업	76.6	76.2	72.3	90.9	141.1	102.4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23.5	99.2	123.5	99.2	-	-
2월	섬유제품 제조업	81.8	75.7	83.5	56.7	135.2	116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97	119	97	119	-	-
3월	섬유제품 제조업	93.4	80.9	75.4	85.5	147.1	120.4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95.7	142.7	95.7	142.7	-	-
4월	섬유제품 제조업	89.5	88.1	83.2	99.9	147.3	111.8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29.9	78.1	29.9	78.1	-	-
5월	섬유제품 제조업	89	78.2	84	92.3	147.8	99.5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46.8	79.7	46.8	79.7	-	-
6월	섬유제품 제조업	89.2	73.8	87.2	70.6	152.5	101.5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74.1	109.3	74.1	109.3	-	-
7월	섬유제품 제조업	80.0	79.7	76.9	77.7	137.2	87.8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94.6	128.2	194.6	128.2	-	-
8월	섬유제품 제조업	94.8	65.7	91.4	56.7	86.6	91.0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64.7	82.5	164.7	82.5	-	-
9월	섬유제품 제조업	86.1	64.4	106.6	47.8	134.7	101.9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26.8	66.9	126.8	66.9	-	-
10월	섬유제품 제조업	84.4	76.3	78.8	76.6	152.7	120.5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38.0	35.7	38.0	35.7	-	-
11월	섬유제품 제조업	79.8	62.8	97.8	60.0	143.6	116.6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66.7	80.9	66.7	80.9	-	-
12월	섬유제품 제조업	69.1	55.8	111.7	59.7	103.9	102.2
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72.8	0.0	72.8	0.0	-	-

자료: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

### 3. 전북지역 주요 이슈

#### □ 플렉스폼코리아(유), 자동차 엔진커버용 흡음/난연 보드 개발

- 자동차 업계의 부품 경량화와 흡음 및 난연 등의 기능성을 개선하고자 유리 섬유와 같은 기존의 소재와는 다른 기능성 폴리에스테르(PET) 섬유를 이용한 자동차 엔진 커버용 흡음/난연 보드 개발에 성공
- 흡음 및 난연 등의 기능성을 갖는 폴리에스테르(PET) 섬유를 사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16% 경량화 된 1,000g/m<sup>2</sup>급의 제품 개발

#### □ 티엔케이, 보조 배터리를 활용한 발열 의류인 ‘플렉스블 히팅 시스템’을 개발

- 탄소섬유에 폴리우레탄을 복합한 기술로 특허등록을 완료
-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섭씨 55도까지 열을 내는 발열체를 방한의류 등에 적용, 내부 온도를 30~55도까지 3단계로 조절 가능
-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지녀 의류뿐 아니라 장갑, 매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

#### □ 전북도, 최근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에 적극 대응에 나섬

- 문재인 대통령의 ‘남북 경협’ 강조에 대응하여 대북제재 해제 대비 T/F팀을 통해 각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구체화 방안 마련 중
- 현재 도내에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입주기업은 (주)제이패션, 성실실업, (주)성실섬유, (주)광일실업, (주)베스트프랜드플러시, (주)동화, (주)씨앤씨어패럴 등 7개사
- 7개사 모두 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전북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기대

※ 작성자 : ECO융합섬유연구원 손희정 본부장(sonanne@kictex.re.kr)